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년 8월

교육학석사(기술·가정교육) 학위논문

#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교육전공

배 세 인

#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Admission Decisions

2023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교육전공  
배세인

#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지도교수 김진숙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기술·가정교육)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교육전공

배세인

# 배세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용섭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재영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진숙	인

2023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범위 .....	3
2. 연구방법 .....	5
제2장 이론적 배경 .....	7
제1절 특성화고 학생 .....	7
1. 특성화 고등학교의 개념 .....	7
2. 특성화고 학생의 특성 .....	10
제2절 대학진학 결정 .....	12
1. 대학진학결정의 개념 .....	12
2. 진학결정관련 이론 .....	12
3.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의 의미 .....	13
제3절 대학진학결정 영향요인 .....	14
1. 개인요인 .....	14
2. 가정요인 .....	15
3. 학교요인 .....	16

4. 사회요인 .....	16
제4절 선행연구 .....	18
<b>제3장 연구설계 .....</b>	<b>21</b>
제1절 연구모형 .....	21
제2절 연구가설 .....	23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	25
<b>제 4 장 실증분석 .....</b>	<b>29</b>
제1절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자의 특성 .....	29
1. 자료수집 .....	29
2. 연구대상자의 특성 .....	29
제2절 측정도구의 검증 .....	32
제3절 기술통계 .....	37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	37
2. 대학 진로결정 여부에 따른 변인별 차이 분석 .....	40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	45
제4절 가설의 검증 .....	48
<b>제5장 결론 .....</b>	<b>53</b>
제1절 분석결과의 논의 .....	53
1. 가설검증 결과 .....	53

2. 연구의 논의 .....	54
제2절 연구의 시사점 .....	56
제3절 향후 연구방향 및 제언 .....	57
참고문헌 .....	59
부록(설문지) .....	67



## 표 목 차

<표 2-1> 2022 교육과정 특성화 고등학교 편제표 .....	8
<표 2-2>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에 관한 선행연구 .....	19
<표 4-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	30
<표 4-2> 응답자의 가족, 학교, 친구에 관한 사항 .....	31
<표 4-3> 개인 요인(자기효능감) 신뢰도 분석 .....	33
<표 4-4> 가정 요인(부모의 양육태도) 신뢰도 분석 .....	34
<표 4-5> 학교 요인 신뢰도 분석 .....	35
<표 4-6> 사회적 요인(취업 장벽) 신뢰도 분석 .....	35
<표 4-7> 개인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	37
<표 4-8> 가정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	38
<표 4-9> 학교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	38
<표 4-10> 사회적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	39
<표 4-11> 진로 결정 여부에 따른 개인 요인 차이 .....	40
<표 4-12> 진로결정 여부에 따른 가정 요인 차이 .....	41
<표 4-13> 진로결정여부에 따른 학교 요인 차이 .....	42
<표 4-14> 진로결정여부에 따른 사회적 요인 차이 .....	43
<표 4-15> 개인요인과 진로 결정 간의 상관관계 .....	45
<표 4-16> 가정 요인과 진로 결정 간의 상관관계 .....	46
<표 4-17> 학교 요인과 진로 결정 간의 상관관계 .....	46
<표 4-18> 사회적 요인과 진로 결정 간의 상관관계 .....	47
<표 4-19> 개인요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	48

<표 4-20> 가정요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 49  
<표 4-21> 학교요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 50  
<표 4-22> 사회적 요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 51

## 그림 목 차

<그림 3-1> 연구모형 ..... 22

## ABSTRACT

###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Admission Decisions

Bae Se-in

Advisor : Prof. Jin-suk Kim Ph.D.

Technology and Home-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decision-making of students in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analyze their characteristics. Specialized high schools are no longer just for employment through vocational education, but are required to switch to a training institution for college entrance exams, and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education for students should be conducted by analyzing related factors.

At a time when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decision-making is increasing,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college entrance is an essential research task for preventing social and economic losses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and preparing for the future.

Looking at previous studies, studies on variables that affect career perception and career maturity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factors affecting college admission decisions for students in specialized high schools. In addition, there are many studies that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individuals, families, and schools as well as factors that affect career decisions, but not many studies have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factors and various variables.

It is inferred that the impact on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decision to enter college depends on personal, family, school, and social factors. In other words, it is judged that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decision to enter college and each factor will play a role, and research on this is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ollege entrance decisions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and discuss how they affect them. By predicting and identifying factors that affect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decision to enter college,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prevent their careers from being undecided and identify factors that determine college admission.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prevent problems.

**Keywords: specialized high school, individual factors, family factor, school factor, social factor**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목적

특성화고등학교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를 말한다. 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에 대한 인식변화 및 계속되는 청년 실업난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인해 취업보다는 대학으로의 진학 결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교육부, 2022a).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입학·취업 안내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교육부, 2023)에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진학하는 학생의 유형을 특정분야에 소질과 적성을 갖고 새롭게 진로를 개척하고 싶은 학생, 즐겁고 유연한 학교생활 후 전략적으로 진학하고 싶은 학생,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고 전문기술인(기능인, 명장, 명인)이 되고 싶은 학생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특성화고는 이전의 취업 정책만을 고수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진학하고 싶은 학생까지도 대상으로 규정지어 홍보 전략으로 예비 특성화고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보면 졸업생 7만6760명 가운데 3만4686명(45.2%)이 진학했고, 2만2709명(29.6%)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나 진학, 입대 등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미취업 상태로 남은 학생은 1만6550명(21.6%)이었다. 또한 교육부에서 2022년 조사한 「진로교육현황조사」에서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고등학교 유형별 비교) 통계표 중 특성화고의 진로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진학 37.6%, 취업 32.6%, 창업 4.5%, 기타(군입대, 해외 유학) 8.7%, 아직 결정하지 않음 16.6%로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2022b).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 결정은 자신의 흥미나 적성, 능력에 대한 능동적인 진로 탐색 과정을 거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중학교 때의 낮은 학업성적과 그로 인한 자신감 부족 및 가정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의 이유들로 진로를 선택한다(양희진, 2022). 이러한 문제로 인해 특성화고 재학 중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졸업 후까지도 미진학, 미취업으로 까지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경제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진로결정을 함에 있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 시기에 내린 결정은 일생동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중요한 진로결정을 하는 시기이므로, 이때의 합리적인 진로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윤영란, 2009).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 설계하는 고등학교 시기는 Erikson(1950)의 성격발달 다섯 번째 단계인 자아정체감 형성과 정체감 혼미의 시기로 자아정체감 위기가 두드러진 시기이다.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청소년에게 큰 고통이 따른다고 하였다. 정체감 형성에 진로선택과 직업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영남,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개인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대학진학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한다. 특성화고는 더 이상 직업 교육을 통한 취업뿐만이 아닌 대학 진학을 위한 양성기관으로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여 학생의 진로 상담 및 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 결정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 진학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 손실과 특성화고 학생의 미래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일반고 학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 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와 개인, 가정, 학교 등의 환경적 변인과 진로 결정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많으나 사회적 요인과 여러 가지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즉,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 결정과 각각의 요인들이 변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논의 해보고자한다.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 결정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예측하고 규명함으로써,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 미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학 진학 결정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 진학 시 필요한 교육 및 제반 사항, 그리고 미흡한 대학 진학 준비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진학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개인요인과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적 요인에 따른 가설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4개의 영역으로 한정 지었고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요인의 분석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연구한 ‘특성화고 진로이력 분석연구 2012’에서 적성의 인지, 자아 효능감의 2개의



하위 변인과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하였고(곽의근, 2017),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 어려움극복 효능감은 Bandura(1995)의 자기효능감 질문지를 안귀덕, 황정규, 김의철과 박영신(1997)의 연구에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진로결정효능감은 박영신(2018)이 제작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총 20문항으로 분석하였다(이영남, 2019).

둘째, 가정 요인(부모의 양육태도) 분석을 위해 5개의 하위변인들을 각각 5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25문항으로 분석하였다. 하위요인 중 긍정적 양육태도 요인으로 애정, 성취지향, 희생, 부정적 양육태도 요인으로는 통제, 거부, 무관심이 사용되었다. 긍정적 양육태도요인의 애정, 부정적 양육태도의 무관심과 거부는 Rohner(1984)의 부모통제 질문지를 박영신과 김의철(2000)이 번역한 것을 활용하였고, 희생변인에 대한 문항은 박영신과 김의철(2006)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성취지향변인의 문항들은 김의철과 박영신(1999)이 제작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셋째, 학교 요인(학교생활)은 총 24개 문항으로 하위 요인 중 학교만족 4문항은 서울시 교육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연구한 ‘특성화고 진로이력 분석연구 2012’에서 사용하였고, 나머지 20문항은 박영신(2018)이 제작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변인으로 학업문제, 친구문제, 교사와 갈등, 가정문제, 학업중단의도 5가지로 각각 4문항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사회적 요인(취업 장벽)은 윤광현(2012)이 개발한 취업 장벽 측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취업결정 자기효능감, 부모님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차별의 인식, 미래불확실성 등 총 5개의 하위요인과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 및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서술로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과 대학 진학 결정의 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앞서 서술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가설에 맞추어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설문지 구성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제4장은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고, 측정도구 검증 및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제5장은 앞서 4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개인요인과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적 요인이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진학결정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고 연구 설계를 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요인과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적 요인이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진학결정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전문서적, 통계 자료,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조하여 활용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주제와 연관된 변인들을 검토하여 연구모형과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개인요인과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적 요인이 대학진학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위하여 독립변수인 대학진학결정 요인을 개인요인과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하위요인을 선택하여,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의 분석을 위한 설문내용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관한 기초문항인

학과, 학년, 진로 결정 유형, 가족의 구성 형태, 부모의 직업 유무, 경제수준, 가정 생활, 학교생활, 친구 관계의 기본 문항과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적 요인 등 총 98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넷째, 실증분석을 위하여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특성화고등학교 1~3학년 남학생 289 명을 대상으로 집단조사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3년 4월 3~7일 까지 5 일간 이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이용한 자료수집 분석을 위해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고, 유의수준  $p < .05$ ,  $p < .01$ ,  $p < .001$ 에서 검증하였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특성화고 학생

#### 1. 특성화 고등학교의 개념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이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공업, 농업·생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계열로 분류되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유망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와는 구분되고 있다(김홍기, 2016).

2007년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명칭을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계 고등학교로 변경하였고(교육과학기술부, 2007), 2010년 6월 전문계 고등학교의 명칭을 특성화 고등학교로 재변경 하였다(이선제, 2010). 하지만 현재까지도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공업 고등학교, 상업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용어는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기존의 전문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예술관련 고등학교, 대안학교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고 ‘특성화’란 의미가 ‘특정 분야의 특성화’인지 ‘학교 운영상의 특성화’인지에 따라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010년 6월 변경된 명칭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박봉남, 2012).

특성화고등학교는 2021년 기준 전국 총 488개교(직업계특성화고 463교, 대안특성화고 25교)가 있으며, 고등학교 총 2,367개교 중 20.6%를 차지한다(교육부, 2021a).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은 인문교육과 전문교육을 함께 한다. 직업교육의

핵심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시에 길러내는 데 있다. 그러므로 신산업·유망산업 분야와 연계한 학과개편과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여 기초 기술인재 양성에 노력하고자 다양한 직업교육을 시행한다(교육부, 2021b). 특성화고등학교의 미래 방향은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 교육과정의 모색과 고등학교 졸업으로도 그 분야에서 충분히 전문가로써의 자격과 그에 따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요구된다(한미순, 2022).

<표 2-1> 2022 교육과정 특성화 고등학교 편제표

	교과(군)	공통 과목	필수 이수 학점	자유 이수 학점
보통 교과	국어	공통국어1, 공통국어2	24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공통수학1, 공통수학2		
	영어	공통영어1, 공통영어2		
	사회 (역사/도덕 포함)	한국사1, 한국사2	6	
		통합사회1, 통합사회2	12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체육		8	
	예술		6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 한문/교양		8	
소계			64	30
전문 교과Ⅱ	17개 교과(군)		80	
창의적 체험활동			18(288시간)	
총 이수 학점			192	

<표 2-1>은 2022 교육과정 특성화 고등학교 편제표이다.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공통 과목의 기본 학점은 4학점이며, 1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1, 2의 기본 학점은 3학점이며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과학탐구실험1, 2의 기본 학점은 1학점이며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학, 체육,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필수 이수 학점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학점이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학점 이상,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는 1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국어, 수학, 영어 교과목의 이수 학점 총합은 81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교과 이수 학점이 17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이수 학점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수는 최소 이수 학점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교육부, 2022c).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 실습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교와 산업계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현장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현장 실습은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전문교과Ⅱ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정 단위 이상 편성해야 하는 과목으로 국가직무 능력표준에 따라 경영·금융, 보건·복지 등 총 17개 과(군)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총 192 이수 학점 중 창의적 체험 활동 18학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보통교과로 편성되지만, 특성화고등학교는 보통교과 최소 편성 학점인 64학점 기준을 충족 후 대부분 전문교과를 편성하여 학생들이 해당 분야

직무능력을 기를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문교과의 대부분이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보통교과 이수 단위가 점차 낮아지고, 실무과목 이수 단위는 높아진다(김남희, 2021).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흥미를 고려하여 정부부처 소관 산업 분야로 규정된 특성 산업 분야와 연관된 전문 교육을 차별화된 교육 환경에서 특성 있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정의할 수 있다(허다경, 2017).

## 2. 특성화고 학생의 특성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의 특성은 첫째, 적성과 소질 보다는 중학교 성적에 맞춰서 진학하며, 졸업 후 대학 진학을 목표로 진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맹희주, 2014), 둘째, 성적이 낮은 학생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진로에 대해 깊이생각해보지 않고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다(주홍석·정철영, 2012).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나 정보도 없이 진학한 학생들이 뒤늦게 자신들의 희망 진로와 현재 고등학교 세부 계열이 일치하지 않음을 깨닫거나 세부 전공이 실제 현장에서 자신과 맞지 않음을 발견하지만, 재학 중 계열 변경이 어려운 학교 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설립 취지와 달리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점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갈등을 주고 있다(김소예, 2009). 또한 특성화고의 특성상 교과 편제로 인하여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입시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권미숙, 2022).

특성화고는 진학보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취업지원 활동을 통해 졸업 후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 이처럼 특성화고는 직업 교육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졸업 후 바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현장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

나(이영민 외, 2011),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장기화된 취업난으로 인해 졸업 후 취업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보다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학력을 사회적 지위획득의 수단으로 보기에 경쟁적으로 더욱 높은 학력을 취득하려 하므로 학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학력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론인 지위경쟁이론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김흥기, 2017). 2021년 전국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73.7%로 한국은 청년층의 대학 진학률이 OECD 국가 중 2위에 달하는 학력 중심 사회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21a; 2021c).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더라도, 특성화고는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에 특성화고에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선택이다.

다가오는 선진 한국사회에서 직업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더불어 그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선택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이준호, 2013).



## 제 2 절 대학진학 결정

### 1. 대학진학 결정의 개념

진학의 사전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학문의 길에 나아가 배움을 의미하며 둘째는 상급학교에 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급학교의 진학은 교육성취와 직결되고, 교육성취는 다시 사회에서의 지위획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이 어떤 성격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가는 교육평등 및 사회이동과 관련하여 심대한 의미가 있다(송하림, 2016).

진학결정수준이란 진로결정수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하는 진학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 진학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일컫는 것이며 역으로는 진학미결정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이재철, 2015). 또한 홍성표(2016)는 진학결정수준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학을 얼마나 선호하고 있으며, 진학에 대한 결정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 수준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학교나 교사들이 고등학생의 진학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진학 결정 및 준비행동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진학결정수준과 진학준비행동수준의 측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김아영, 2022)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진학 결정 요인의 분석을 통해 보다 세밀한 대학진학 결정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 2. 진학결정 관련이론

노혜정(2003)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결정수준과 진학준비행동수준, 불안,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 연구에서 진학결정 수준이 진학준비행

동수준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과는 부적상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이 높을수록 진학결정 수준이 낮아지며 진학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은 진로결정의 선택이 폭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보다 다양하며 진학결정과 관련된 여러 요인에 차이가 있어 일반화 시킬 수 없다.

홍성표·정진철(2016)의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결정수준과 진학결정수준을 구분하여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하였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을 취업결정수준과 진학결정수준으로 구분하였고, 진로준비행동은 취업준비행동과 진학준비행동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진로결정과 관련한 대표적 학자로는 Ginzberg와 Super가 있는데 이들의 진로발달이론은 공통적으로 고등학교시기를 진로결정을 구체화하고 준비하는 단계로 보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1학년 시기는 보통 교과 지식 학습하고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단계이며, 2~3학년 시기는 본격적인 진로 결정시기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현실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진학과 취업을 결정하는 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 3.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의 의미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많은 학생들은 애초 입학할 때의 진로 결정을 번복하기도 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로를 바꾸고 싶어 하고 이러한 결과로 학교 중단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김재홍, 2004).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진학과 취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 결정에 있어 더욱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애초의 진로 결정 목표에 따라 선택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업 및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충분한 정보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이명섭, 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는 대학생의 진로발달 시기에 해당하는 진로전문문화에 맞추어서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필요함과 동시에 진로결정이 늦은 이유를 탐색해 결단성을 길러줄 수 있는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정소영, 2013).

최근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학생들이 진로 문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어떻게 진로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지, 진로 결정을 어떻게 유지하도록 지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들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매우 구체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지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결정을 위한 이들의 인식 및 현황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허다경, 2017), 특성화고 학생의 다양한 진로결정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의의에 관한 정의가 필요하다.

### 제 3 절 대학진학 결정 영향요인

#### 1. 개인요인(자기효능감)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라고 하였다. 즉, 어떠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성공경험과 대리적경험, 언어적설득력, 생리적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네 가지요소는 첫째, 개인의 성공경험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은 증가하고, 실패를 많이 하게 되면 자기효능감은 낮아진다. 둘째, 대리적 경험은 자신과 유사한 타인의 성공적인 성취를 통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며, 셋째, 언어적 설득력은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끌어 내는 칭찬과 격려

를 의미한다. 넷째, 생리적 정서적 상태는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고 자신의 상태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완성·김미숙, 2009). 또한 중단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최수정, 2007)가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모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이라는 연구결과(김경식·이현철, 2007)도 있었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으로는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등이 있다.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는 높은 정적상관이 있었고, 자기효능감이 진로불안과 진로스트레스를 낮추고,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도를 높여 진로성숙도를 증가시켰으며(이영남, 2019), 개인요인은 대학진학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 2. 가정요인(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상호작용 하며,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의 자녀가 학업성취수준은 높고, 비행의 수준은 낮다(박영신·김의철, 1998). 자녀가 부모의 대화적 지지가 많고, 경험적 지지가 적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의 진로결정수준은 높아지며(이주희·문은미, 2011), 부모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는 감소되었다(이재혁·박재우, 2019).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진로결정을 위해 조언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유정이 외, 2009), 진로에 있어 핵심이 되는 지도로 학업지도(하정 외, 2007)가 필요하다. 또한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성취는 물론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원부모의 희생적이고, 존경할수록, 죄송함이 클수록, 기대에 일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성인자녀에게 더 많은 정서적 지원과 희생

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박영신·김의철, 2003; 박영신 외, 2018)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는 다음 세대에 대물림되어지며 자녀의 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3. 학교 요인(학교생활)

이혜영(2012)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부적응 원인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특성화고와 일반계고 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학업(특성화고 35.7%, 일반계고 64.7%)이었다. 학교에 다니는 이유에서는 공부하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를,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는 학교 공부가 재미없어서였다. 교사가 보는 학생의 문제는 특성화고는 가정(40.0%)을, 일반계고는 학습·성적(45.3%)로 다름을 보였다. 학교부적응의 원인이 학업에 대한 문제의식은 일반계고가 높고, 가정의 문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높아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학교부적응은 학업중단의 확률을 높인다(박영신, 2022). 이영남(2019) 또한 진로성숙도가 학업중단의도와 학업문제는 물론 친구 문제, 가정 문제, 교사와의 갈등과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진로 성숙도가 학교부적응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 4. 사회적 요인(취업장벽)

취업장벽이란 진로장벽의 여러 경험들 중 하나로 취업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개인들이 느끼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벽이며 개인의 생애에서 진로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장벽 중 하나라고 말한다(윤창호, 2005). 이러한 장벽들은 취업으로의 진로결정이나 취업준비 그리고 직장생활 등의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이 취업으로의 목표를 향하여 여러 경험들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을 의미한다(이지혜 외, 2010).

취업과 관련되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진로를 선택한 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막는 여러 갈등 요소를 뜻하며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할 때, 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장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신애 외, 2015). 따라서 특성화고 학생에게 있어서 취업장벽이란 학생 개인이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갈등 요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영란, 2015).

## 제 4 절 선행 연구

고등학생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성적, 미래직업 결정, 자신의 적성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이 제기되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진로결정이 빠르고(정채기, 1991),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다(진학하려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신희경 외, 2005). 또한, 자신의 적성을 알고 미래직업 결정에 대한 확인이 강한 집단 일수록 진로를 일찍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헌석 외, 2010; 조아미, 2007).

가정 요인에서는 주로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연구되었는데, 자녀에 대한 포부 및 기대 수준은 자녀의 진로성숙 및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범·정철영, 2004). 부모는 대화를 통해 진로를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주며, 적성과 흥미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줘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해준다(House, 1981).

학교 요인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진로경험, 진로에 관심을 주는 교사의 유무 등이 주로 거론된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을 뜻하며 교과내용,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하므로 진로 결정에 정적인 상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혜은, 2008; 문승태·김희수, 2009), 학교진로 프로그램 및 진로에 대한 관심을 주는 교사 유무는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신희경·김우영, 2005; 황여정, 2007).

선행 연구결과에서 성별은 학습능력과 상관없이 대학진학여부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경제적 배경과 함께 작용한다고 하였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은 남자에 비해 여자의 경우 더욱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다(김정란, 2006). 채창균(2009)은 성별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교육투자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성별임금격차에 따라 딸에 대한 교육투자보다 아들에 대한 교육투자를 우선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2-2>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설명변인	반응변인
변수용·김경근 (2012)	전문계고 졸업생	로지스틱 회귀	대학 진학 여부	개인 특성(성별, 공부시간, 학업성취도, 희망교육수준, 고교 재학중 징계 경험,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횟수, 전문계고 진학이유, 졸업 직후 일자리 경험 여부), 가정배경(부모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사교육비, 가족구조, 자녀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학교 특성(설립유형, 학교유형, 학교계열, 학교 소재지)
오석영 (2012)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 1학년 재학생	다항 로지스틱 회귀	진로 결정 여부	성별, 계열, 개인 특성(자기효능감, 학업성적 국영수, 미래직업 결정여부, 자기 적성에 대한 인지여부), 가정(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진로관련 대화 경험), 학교(학교생활만족도, 진로와 직업수업, 학과 학교안내, 진로검사, 진로상담, 진로관심교사)
김미선·남숙경 (2013)	특성화고 2~3학년 남학생	중다회귀	대학 진학/취업집단	개인적 특성(개인주의-집단주의), 학교 및 진로 특성(학교생활만족도,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
오석영·조인식 (2015)	특성화고 재학생	다항 로지스틱 회귀	진로 결정 여부	개인 요인(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자기통제력, 학습태도-국영수, 전문교과 등), 학교 요인(학교 전반에 대한 만족도, 교사에 대한 만족도, 진로학습 경험 경험 정도 및 만족도), 가정 요인(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진로 학습경험, 진로결과, 통제변인(성별, 남성 보호자의 학력)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진학과 관련된 요인은 개인 요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관하여 살펴볼 수 있는 가구 특성이나 학교 및 진로특성을 변인으로 선택하여 분석한 것을 확인하였다(장하연·이영민, 2022).

성적은 대학 진학 결정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성취 또한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최동선, 2009). 채창균(2009)은 학교성적이 우수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연구결과 또한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대학진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성철(1989)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



정에 있어서 성적은 지능과 가정배경의 효과를 매개한다고 하였다.

가구소득과 대학진학에 관련된 연구들에서,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창균, 2009; 최동선, 2009; 김안국·신동준, 2010:). 특히 채창균(2009)의 연구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가구 소득이 100만원 높다면 자녀의 대학진학 가능성이 1.5배 높아지며, 150만원 높을 경우에는 1.8배, 200만원 차이가 날 경우 2.2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채창균(2009)의 연구에서는 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다. 보호자의 학력이 고졸인 졸업생의 경우 중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취업보다 대학을 진학할 가능성이 1.7배 높아지며,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1.8배 높아진다고 하였다. 김순규(200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그 자체로 자녀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 하였다.

학교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교사의 결정권, 학교 소재지, 고졸학력 직업에 대한 기대, 교사와의 상호작용, 학교생활 만족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로결정에 있어 본인 의사뿐만 아니라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고, 실질적 대학진학 결정에는 교사의 결정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나라, 2008).

## 제 3 장 연구 설계

### 제 1 절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개인요인과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요인이 영향이 있는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총 4개의 독립 변인과 각각의 하위 변인을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요인(자기효능감)으로 적성의 인지, 자아 효능감,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 진로결정 효능감, 어려움 극복 효능감으로 총 6개의 하위변인을 설정하였다.

둘째, 가정요인(부모의 양육태도)으로 애정, 무관심, 거부, 성취지향, 희생으로 총 5개의 하위변인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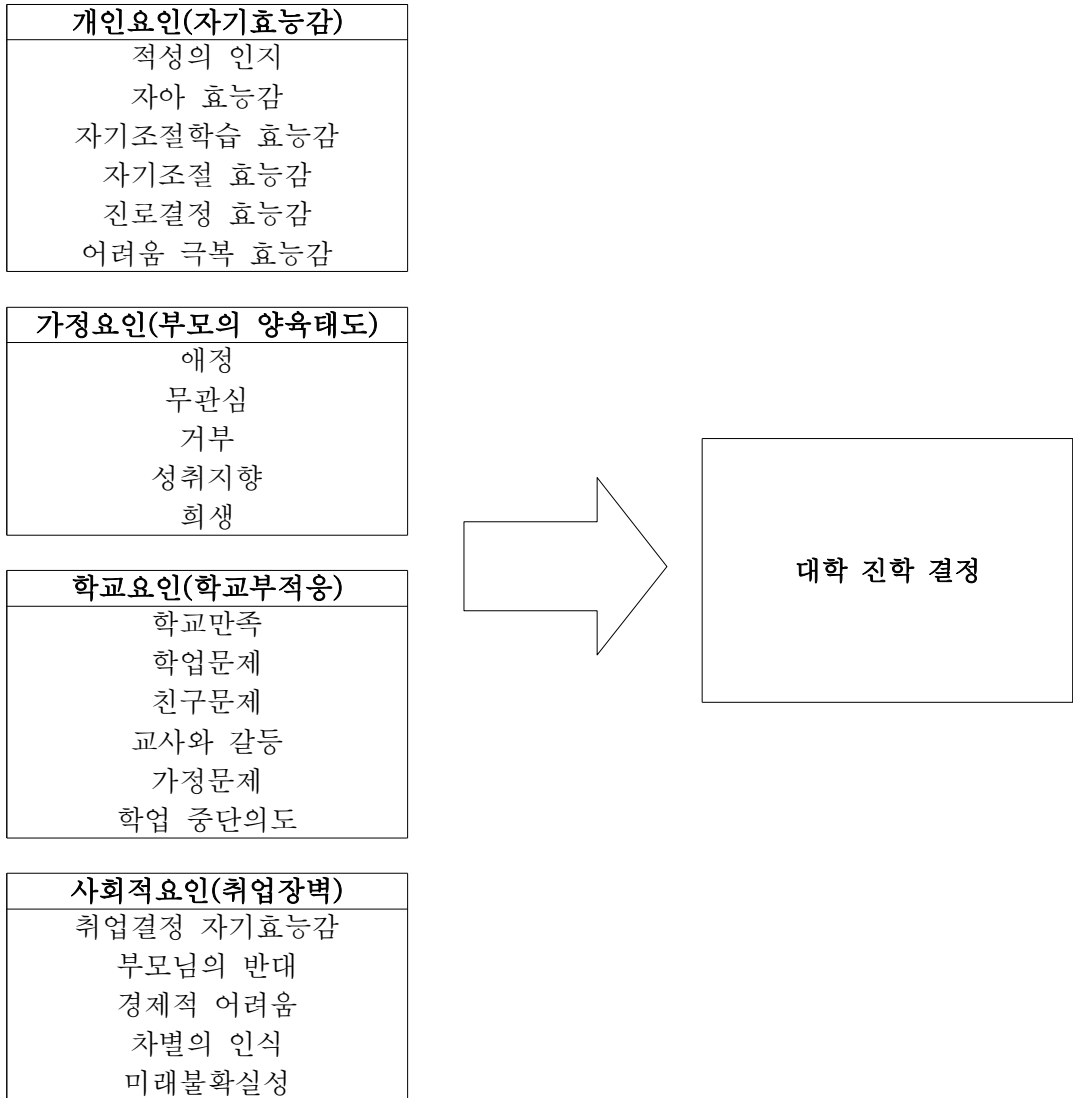
셋째, 학교요인(학교부적응)으로 학교만족, 학업문제, 친구문제, 교사와 갈등, 가정문제, 학업 중단의도로 총 6개의 하위변인을 선정하였다.

넷째, 사회적요인(취업장벽)으로 취업결정 자기효능감, 부모님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차별의 인식, 미래불확실성으로 총 5개의 하위변인을 선정하였다.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는 개인, 가정, 학교 요인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사회적요인에 관한 언급은 선행연구에서 거의 없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추가하여 연구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대학 진학 결정을 선정하였다. 이는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을 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을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선정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 제 2 절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 결정에 개인요인과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에 따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4개의 독립변수와 각각의 하위 요인들을 구분하여 연구하였고, 그에 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특성화고 학생의 개인요인(적성의 인지, 자아 효능감,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 진로결정 효능감, 어려움극복 효능감)은 대학 진학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특성화고 학생의 적성의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특성화고 학생의 자아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특성화고 학생의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특성화고 학생의 자기조절 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 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특성화고 학생의 어려움극복 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특성화고 학생의 가정요인(애정, 무관심, 거부, 성취지향, 희생)은 대학 진학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특성화고 학생의 가정의 애정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특성화고 학생의 가정의 무관심 수준이 낮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특성화고 학생의 가정의 거부 수준이 낮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특성화고 학생의 가정의 성취지향 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특성화고 학생의 가정의 희생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특성화고 학생의 학교요인(학교만족, 학업문제, 친구문제, 교사와 갈등, 가정문제, 학업 중단의도)은 대학 진학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특성화고 학생의 학교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특성화고 학생의 학업문제 수준이 낮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특성화고 학생의 친구문제 수준이 낮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와 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5. 특성화고 학생의 가정의 가정문제 수준이 낮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6. 특성화고 학생의 학업 중단의도 수준이 낮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특성화고 학생의 사회적요인(취업결정 자기효능감, 부모님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차별의 인식, 미래불확실성)은 대학 진학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특성화고 학생의 부모님의 취업반대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특성화고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 수준이 낮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4. 특성화고 학생의 차별의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5. 특성화고 학생의 미래불확실성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개인요인과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하위 요인 척도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개인요인(자기효능감) 측정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교육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연구한 《특성화고

진로이력 분석연구 2012》에서 적성의 인지, 자아효능감 2개의 변인에서 4개의 설문 문항과 6개의 변인 중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은 Bandura(1995)의 자기효능감 질문지를 안귀덕, 황정규, 김의철과 박영신(1997)의 연구에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진로결정효능감은 박영신(2018)이 제작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개별 하위변인이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개인 요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전체에 대한 신뢰계수가 .943으로 나타났고, 개인 요인 중 적성의 인지에 대한 신뢰계수가 .827, 자아효능감에 대한 신뢰계수가 .767,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에 대한 신뢰계수가 .870, 자기조절 효능감에 대한 신뢰계수가 .814, 진로 결정 효능감에 대한 신뢰계수가 .749, 어려움 극복 효능감에 대한 신뢰계수가 .864로 나타나, 이는 모든 영역에서 .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각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신뢰할 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가정요인(부모의 양육태도) 측정

부모의 양육태도는 총 30문항으로 6개의 하위변인을 각각 5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하위요인 중 긍정적 양육태도 요인으로 애정, 성취지향, 희생, 부정적 양육태도 요인으로는 거부, 무관심이 사용되었다. 긍정적 양육태도요인의 애정, 부정적 양육태도의 통제, 무관심과 거부는 Rohner(1984)의 부모통제 질문지를 박영신과 김의철(2000)이 번역한 것을 활용하였고, 희생변인에 대한 문항은 박영신과 김의철(2006)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성취지향변인의 문항들은 김의철과 박영신(1999)이 제작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가정요인 신뢰도 분석 결과는 가정요인 전체에 대한 신뢰계수가 .905로 나타났고, 애정에 대한 신뢰계수가 .867, 무관심에 대한 신뢰계수가 .697, 거부에 대한 신뢰계수가 .766, 성취지향에 대한 신뢰계수가 .728, 희생에 대한 신뢰계수가 .849로 나타나, 이는 모든 영역에서 .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각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신뢰할 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 학교 요인(학교생활) 측정

학교생활 변인은 총 20개 문항으로 박영신(2018)이 제작한 문항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변인으로는 학교만족, 학업문제, 친구문제, 교사와 갈등, 가정문제, 학업중단의도의 6가지로 설문문항을 각각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 요인 신뢰도 분석 결과는 학교 요인 전체에 대한 신뢰계수가 .921로 나타났고, 학교 문제에 대한 신뢰계수가 .812, 학업 문제에 대한 신뢰계수가 .814, 친구 문제에 대한 신뢰계수가 .928, 교사와 갈등에 대한 신뢰계수가 .919, 가정 문제에 대한 신뢰계수가 .921, 학업 중단 의도에 대한 신뢰계수가 .914로 나타나, 이는 모든 영역에서 .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각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신뢰할 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라. 사회적 요인(취업장벽) 측정

사회적 요인은 선행연구(이민지·손은정, 2007; 이지혜·정철영, 2010; 조아미, 2000)를 토대로 윤광현(2012)이 개발한 취업 장벽 측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취업 결정 자기효능감, 부모님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차별의 인식, 미래불확실성 등 총 5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장벽을 높게 자각하는 것으



로 본다.

취업장벽과 관련하여 주로 연구가 된 변인은 자존감, 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 등이었으며 진로미결정 상태일수록 취업장벽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wanson & Daniels, 1995).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각한 취업장벽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취업장벽 설문지는 선행연구(이민지·손은정, 2007; 이지혜·정철영, 2010; 조아미, 2000)를 토대로 윤광현(2013)이 개발한 취업장벽 척도 총 34문항 중 20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다.

사회적 요인 신뢰도 분석 결과는 사회적 요인 전체에 대한 신뢰계수가 .919로 나타났고, 취업 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뢰계수가 .790, 부모님의 반대에 대한 신뢰계수가 .784,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신뢰계수가 .761, 차별의 인식에 대한 신뢰계수가 .931,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신뢰계수가 .902로 나타나, 이는 모든 영역에서 .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각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신뢰할 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 4 장 실증분석

### 제 1 절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자의 특성

####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특성화 고등학교 전교생 30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개인요인과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특성화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관한 안내사항은 사전에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관한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 내용 및 연구 주제에 관해 알기 쉽도록 설명이 되었으며,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각 학과의 학과장님, 담임선생님, 교감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담임선생님의 지도와 임장한 상태에서 설문지 작성이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2023년 4월 3일부터 7일 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총 30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지 305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에서 불성실하고 일률적으로 답한 설문지와 여러 항목에 답하지 않은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나머지 289부를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4-1>과 같다.

설문지를 수집한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남학생으로만 구성

된 단성 학교로 남학생 289명(100%)이었으며, 1학년 124명(42.9%), 2학년 77명(26.6%), 3학년 88명(30.4%)의 비율로 1학년의 학생 수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학과별 구성은 공간디자인과 71명(24.6%), 스마트전기과 94명(32.5%), 스마트기계과 49명(17%), 스포츠과학시설과 75명(26.0%)로 스마트전기과의 학생이 32.5%로 가장 많은 구성을 차지하였다. 진로 결정 유형은 진학 148명(51.2%), 취업(48.8%)으로 진학 결정을 내린 학생의 비율이 51.2%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4-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인원(명)	비율(%)
학과	공간디자인	71	24.6
	스마트전기	94	32.5
	스마트기계	49	17.0
	스포츠과학시설	75	26.0
학년	1학년	124	42.9
	2학년	77	26.6
	3학년	88	30.4
진로 결정유형	취업	141	48.8
	진학	148	51.2
전체		289	100.0

<표 4-2> 응답자의 가족, 학교, 친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가족 형태는 양부모가 217명(7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 부모가 58명(20.1%), 기타가 8명(2.8%), 조부모가 6명(2.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의 직업 유무에 대해 살펴보면 맞벌이가 167명(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 분만 직장생활이 112명(38.8%), 두 분 다 무직이 10명(3.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수준에 대해 살펴보면 중이 194명(6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이 47명(16.3%), 하가 35명(12.1%), 최상이 8명(2.8%), 최하가 5명(1.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생활에 대해 살펴보면 만족이 130명(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만족이 99명(34.3%), 보통이 50명(17.3%), 불만이 9명(3.1%), 매우 불만이 1명(0.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대해 살펴보면 만족이 125명(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만족이 73명(25.3%), 보통이 72명(24.9%), 불만이 14명(4.8%), 매우 불만이 5명(1.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만족이 134명(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만족이 83명(28.7%), 보통이 67명(23.2%), 불만이 4명(1.4%), 매우 불만이 1명(.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 응답자의 가족, 학교, 친구에 관한 사항

구 분		인원(명)	비율(%)
가족 형태	양부모	217	75.1
	한부모	58	20.1
	조부모	6	2.1
	기타	8	2.8
직업 유무	맞벌이	167	57.8
	한분만 직장생활	112	38.8
	두 분 다 무직	10	3.5
경제 수준	최하	5	1.7
	하	35	12.1
	중	194	67.1
	상	47	16.3
	최상	8	2.8
가정생활	매우불만	1	.3
	불만	9	3.1
	보통	50	17.3
	만족	130	45.0
	매우 만족	99	34.3
학교생활	매우불만	5	1.7
	불만	14	4.8
	보통	72	24.9
	만족	125	43.3
	매우 만족	73	25.3

친구 관계	매우불만	1	.3
	불만	4	1.4
	보통	67	23.2
	만족	134	46.4
	매우 만족	83	28.7
전체		289	100.0

## 제 2 절 측정도구의 검증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 도구들은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항목에 대한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고, 유의수준  $p < .05$ ,  $p < .01$ ,  $p < .001$ 에서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통계분석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에 관한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가족, 학교, 친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셋째, 개인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 사회적 요인 하위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진로 결정 유형에 따른 개인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 사회적 요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개인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 사회적 요인과 대학 진로 결정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개인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 사회적 요인이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의 구성이 대학진학 결정과 취업이라는 명목적도로 측정되어 적합한 분석방법인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1.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성이란 측정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들에 관한 정확성이나 정밀성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에 사용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알파계수의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항목을 제거하여 알파계수 향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 개인 요인(자기효능감) 신뢰도 분석

구분	하위변인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항목 수
개인 요인	적성의 인지	1, 2	.827	2
	자아효능감	3, 4	.767	2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	5, 9, 11, 14, 17	.870	5
	자기조절 효능감	6, 10, 12, 15, 18	.814	5
	진로 결정 효능감	7, 19	.749	2
	어려움 극복 효능감	8, 13, 16, 20	.864	4
	전체		.943	20

<표 4-3> 개인 요인(자기효능감) 신뢰도 분석을 살펴보면 개인 요인 전체에 대

한 신뢰계수가 .943으로 나타났고, 개인 요인 중 적성의 인지에 대한 신뢰계수가 .827, 자아효능감에 대한 신뢰계수가 .767,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에 대한 신뢰계수가 .870, 자기조절 효능감에 대한 신뢰계수가 .814, 진로 결정 효능감에 대한 신뢰계수가 .749, 어려움 극복 효능감에 대한 신뢰계수가 .864로 나타나, 이는 모든 영역에서 .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각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신뢰할 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가정 요인(부모의 양육태도) 신뢰도 분석

구분	하위변인	문항번호	Cronbach's α	항목 수
가정 요인	애정	1, 6, 11, 16, 21	.867	5
	무관심	2, 7, 12, 17, 22	.697	5
	거부	3, 8, 13, 18, 23	.766	5
	성취지향	4, 9, 14, 19, 24	.728	5
	희생	5, 10, 15, 20, 25	.849	5
	전체		.905	25

<표 4-4> 가정요인(부모의 양육태도) 신뢰도 분석을 살펴보면 가정요인 전체에 대한 신뢰계수가 .905로 나타났고, 애정에 대한 신뢰계수가 .867, 무관심에 대한 신뢰계수가 .697, 거부에 대한 신뢰계수가 .766, 성취지향에 대한 신뢰계수가 .728, 희생에 대한 신뢰계수가 .849로 나타나, 이는 모든 영역에서 .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각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신뢰할 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학교 요인 신뢰도 분석

구분	하위변인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항목 수
학교 요인	학교 만족	1, 2, 3, 4	.812	4
	학업 문제	5, 10, 15, 20	.814	4
	친구 문제	6, 11, 16, 21	.928	4
	교사와 갈등	7, 12, 17, 22	.919	4
	가정 문제	8, 13, 18, 23	.921	4
	학업 중단 의도	9, 14, 19, 24	.914	4
	전체		.921	24

<표 4-5> 학교 요인 신뢰도 분석을 살펴보면 학교 요인 전체에 대한 신뢰계수가 .921로 나타났고, 학교 문제에 대한 신뢰계수가 .812, 학업 문제에 대한 신뢰계수가 .814, 친구 문제에 대한 신뢰계수가 .928, 교사와 갈등에 대한 신뢰계수가 .919, 가정 문제에 대한 신뢰계수가 .921, 학업 중단 의도에 대한 신뢰계수가 .914로 나타나, 이는 모든 영역에서 .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각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신뢰할 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사회적 요인(취업 장벽) 신뢰도 분석

구분	하위변인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항목 수
사회적 요인	취업 결정 자기효능감	1, 2, 3	.790	3
	부모님의 반대	4, 5, 6	.784	3
	경제적 어려움	7, 8, 9, 10, 11	.761	5
	차별의 인식	12, 13, 14, 15, 16	.931	5
	미래 불확실성	17, 18, 19, 20	.902	4
	전체		.919	20

<표 4-6> 사회적 요인(취업 장벽) 신뢰도 분석을 살펴보면 사회적 요인 전체에 대한 신뢰계수가 .919로 나타났고, 취업 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뢰계수가 .790, 부모님의 반대에 대한 신뢰계수가 .784,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신뢰계수가 .761,



차별의 인식에 대한 신뢰계수가 .931,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신뢰계수가 .902로 나타나, 이는 모든 영역에서 .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각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신뢰할 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 3 절 기술 통계

###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적 요인에 대한 각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7> 개인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적성의 인지	289	1	5	3.91	.841
자아효능감	289	1	5	3.85	.858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	289	1	5	3.19	.827
자기조절 효능감	289	1	5	3.60	.730
진로 결정 효능감	289	1	5	3.55	.954
어려움 극복 효능감	289	1	5	3.54	.796
개인 요인	289	1	5	3.54	.678

<표 4-7> 개인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본 연구 대상의 개인 요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개인 요인은 1-5점 범위로 측정되었는데 평균 3.54로 나타났고, 적성의 인지는 평균 3.91, 자아효능감은 평균 3.85,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은 3.19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조절 효능감은 평균 3.60, 진로 결정 효능감은 평균 3.55, 어려움 극복 효능감은 3.54로 나타났다.

<표 4-8> 가정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애정	289	1	5	4.07	.740
무관심	289	1	4	2.08	.671
거부	289	1	5	1.78	.641
성취지향	289	1	5	3.61	.718
희생	289	1	5	3.82	.740
가정 요인	289	1	5	3.93	.529

<표 4-8> 가정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본 연구 대상의 가정 요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가정요인은 1-5점 범위로 측정되었는데 평균 3.93로 나타났고, 애정은 평균 4.07, 무관심은 평균 2.08, 거부는 평균 1.78, 성취지향은 3.61로 나타났다. 또한 희생은 평균 3.82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다.

<표 4-9> 학교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학교 만족	289	1	5	3.56	.761
학업 문제	289	1	5	2.12	.860
친구 문제	289	1	5	1.67	.794
교사와 갈등	289	1	5	1.62	.760
가정 문제	289	1	5	1.55	.746
학업 중단 의도	289	1	5	1.90	.955
학교 요인	289	1	5	2.07	.564

<표 4-9> 학교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본 연구 대상의 학교 요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학교요인은 1-5점 범위로 측정

되었는데 평균 2.07로 나타났고, 학교만족은 평균 3.56, 학업문제는 평균 2.12, 친구문제는 평균 1.67, 교사와 갈등은 1.62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문제는 평균 1.55, 학업중단 의도는 평균 1.90으로 나타났다.

<표 4-10> 사회적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취업 결정 자기효능감	289	1	5	3.35	.876
부모님의 반대	289	1	5	2.22	.858
경제적 어려움	289	1	5	2.39	.746
차별의 인식	289	1	5	2.46	.940
미래 불확실성	289	1	5	2.31	.929
사회적 요인	289	1	4	2.51	.657

<표 4-10> 사회적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본 연구 대상의 사회적 요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사회적 요인은 1-5점 범위로 측정되었는데 평균 2.51로 나타났고, 취업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 3.35, 부모님의 반대는 평균 2.22, 경제적 어려움은 평균 2.39, 차별의 인식은 2.46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불확실성은 평균 2.31로 나타났다.

## 2. 대학 진로결정 여부에 따른 변인별 차이 분석

<표 4-11>은 대학 진로결정여부에 따른 개인 요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4-11> 진로 결정 여부에 따른 개인 요인 차이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적성의 인지	취업	141	3.83	.813	-1.658	.098
	진학	148	3.99	.862		
자아효능감	취업	141	3.83	.819	-.416	.678
	진학	148	3.87	.895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	취업	141	3.08	.827	-2.152*	.032
	진학	148	3.29	.818		
자기조절 효능감	취업	141	3.56	.678	-.949	.343
	진학	148	3.64	.777		
진로 결정 효능감	취업	141	3.48	.889	-1.367	.173
	진학	148	3.63	1.009		
어려움 극복 효능감	취업	141	3.49	.721	-1.161	.247
	진학	148	3.60	.859		
개인 요인	취업	141	3.47	.625	-1.636	.103
	진학	148	3.60	.721		

\*p<.05

전체 개인 요인에 대한 차이는 진로 결정이 취업인 경우가 3.47점, 진학이 3.60점으로 나타나, 진학이 취업보다 개인 요인에 대한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요인 중 적성의 인지에 대한 차이 결과, 취업이 3.83점, 진학이 3.99점으로 나타났으며, 진학이 취업보다 적성의 인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자아효능감에 대한 차이 결과는 취업이 3.83점, 진학이 3.87점으로 나타났고, 진학이 취업보

다 자아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에 대한 차이 결과는 취업이 3.08점, 진학이 3.29점으로 나타났으며, 진학이 취업보다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t=-2.152$ ,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 효능감에 대한 차이 결과는 취업이 3.56점, 진학이 3.64점으로 나타났으며, 진학이 취업보다 자기조절 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진로결정 효능감에 대한 차이 결과는 취업이 3.48점, 진학이 3.63점으로 나타났으며, 진학이 취업보다 진로결정 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어려움 극복 효능감에 대한 차이 결과는 취업이 3.49점, 진학이 3.60점으로 나타났으며, 진학이 취업보다 어려움 극복 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12> 진로결정 여부에 따른 가정 요인 차이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애정	취업	141	4.09	.744	.390	.697
	진학	148	4.06	.738		
무관심	취업	141	2.07	.652	-.439	.661
	진학	148	2.10	.691		
거부	취업	141	1.75	.650	-.781	.436
	진학	148	1.81	.634		
성취지향	취업	141	3.57	.735	-.831	.406
	진학	148	3.64	.703		
희생	취업	141	3.73	.752	-1.875	.062
	진학	148	3.90	.722		
가정요인	취업	141	3.92	.517	-.337	.736
	진학	148	3.94	.542		

\* $p<.05$

<표 4-12>는 진로결정여부에 따른 가정 요인 차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전체 가정 요인에 대한 차이는 진로결정이 취업인 경우가 3.92점, 진학이 3.94점으로 나타났다. 진학이 취업보다 가정요인에 대한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요인 중 애정에 대한 차이는 취업이 4.09점, 진학이 4.06점으로 나타났고, 취업이 진학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무관심에 대한 차이 결과, 취업이 2.07점, 진학이 2.10점으로 나타났고, 진학이 취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거부에 대한 차이 결과 취업이 1.75점, 진학이 1.84점으로 나타나, 진학이 취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p > .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지향에 대한 차이 결과는 취업이 3.57점, 진학이 3.64점으로 나타나, 진학이 취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희생에 대한 차이 결과, 취업이 3.73점, 진학이 3.90점으로 나타나, 진학이 취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13> 진로결정여부에 따른 학교 요인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학교 만족	취업	141	3.46	.708	-2.188*	.029
	진학	148	3.65	.799		
학업 문제	취업	141	2.18	.886	1.237	.217
	진학	148	2.06	.833		
친구 문제	취업	141	1.67	.822	-.058	.954
	진학	148	1.68	.769		
교사와 갈등	취업	141	1.63	.777	.200	.841
	진학	148	1.61	.746		
가정 문제	취업	141	1.56	.758	.127	.899
	진학	148	1.55	.737		
학업 중단 의도	취업	141	1.84	.906	-1.136	.257
	진학	148	1.97	.997		
학교요인	취업	141	2.06	.583	-.435	.664
	진학	148	2.08	.547		

\* $p < .05$

<표 4-13>은 진로결정여부에 따른 학교 요인 차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전체 학교 요인에 대한 차이는 진로결정이 취업인 경우가

2.06점, 진학이 2.08점으로 나타나, 진학이 취업보다 학교요인에 대한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만족에 대한 차이 결과는 취업이 3.46점, 진학이 3.65점으로 나타나, 진학이 취업보다 학교만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t=-2.188$ ,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문제에 대한 차이 결과, 취업이 2.18점, 진학이 2.06점으로 나타나, 취업이 진학보다 학업문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

친구문제에 대한 차이 결과는 취업이 1.67점, 진학이 1.68점으로 나타나, 진학이 취업보다 다소 친구문제가 더 높게 나타났고, 교사와의 갈등에 대한 차이 결과는 취업이 1.63점, 진학이 1.61점으로 나타나, 취업이 진학보다 교사와의 갈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문제에 대한 차이 결과는 취업이 1.56점, 진학이 1.55점으로 나타나, 취업이 진학보다 가정문제가 더 높게 나타났고, 학업중단의도에 대한 차이 결과는 취업이 1.84점, 진학이 1.97점으로 나타나, 진학이 취업보다 학업중단의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진로결정여부에 따른 사회적 요인 차이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취업 결정 자기효능감	취업	141	3.47	.865	2.283*	.023
	진학	148	3.23	.874		
부모님의 반대	취업	141	2.18	.856	-.829	.408
	진학	148	2.27	.861		
경제적 어려움	취업	141	2.46	.727	1.479	.140
	진학	148	2.33	.762		
차별의 인식	취업	141	2.50	.889	.614	.539
	진학	148	2.43	.988		



미래 불확실성	취업	141	2.39	.926	1.436	.152
	진학	148	2.23	.930		
사회적요인	취업	141	2.56	.609	1.337	.182
	진학	148	2.46	.699		

\*p<.05

<표 4-14>는 진로결정여부에 따른 사회적 요인 차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전체 사회적 요인에 대한 차이는 진로 결정이 취업인 경우가 2.56점, 진학이 2.46점으로 나타나, 취업이 진학보다 사회적 요인에 대한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차이 결과는 취업이 3.47점, 진학이 3.23점으로 나타나, 취업이 진학보다 취업결정 자기 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t=2.283$ ,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의 반대에 대한 차이 결과는 취업이 2.18점, 진학이 2.27점으로 나타나, 진학이 취업보다 부모님의 반대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차이 결과는 취업이 2.46점, 진학이 2.33점으로 나타나, 취업이 진학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차별의 인식에 대한 차이 결과는 취업이 2.50점, 진학이 2.43점으로 나타나, 취업이 진학보다 차별의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미래불확실성에 대한 차이 결과는 취업이 2.39점, 진학이 2.23점으로 나타나, 취업이 진학보다 미래불확실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위해 상관계수인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r)를 이용해 관련성의 유무와 정도를 파악하고자 Pearson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Correlation)분석이란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 방법으로서,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관련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기법이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은 연구의 이론적 체계에 도입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개관할 수 있고, 설정된 가설의 검증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검증을 통해 신뢰성이 입증된 각 이론변수들 간의 상호상관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5> 개인요인과 진로 결정 간의 상관관계

구분	적성의 인지	자아 효능감	자기조절 학습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	진로결정 효능감	어려움극복 효능감	개인 요인	진로 결정
적성의 인지	1							
자아 효능감	.660***	1						
자기조절 학습효능감	.436***	.569***	1					
자기조절 효능감	.481***	.614***	.717***	1				
진로결정 효능감	.658***	.605***	.573***	.559***	1			
어려움극복 효능감	.567***	.617***	.658***	.734***	.674***	1		
개인요인	.696***	.778***	.860***	.877***	.783***	.877***	1	
진로결정	.097	.025	.126*	.056	.080	.068	.096	1

\*\*\*p<.001

<표 4-15> 개인요인과 진로 결정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요인 중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과 진로 결정과는  $r=.126(p<.05)$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요인 중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개인 요인 중 자아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 진로 결정 효능감, 어려움 극복 효능감과 진로결정과는  $p>.05$ 로 나타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가정 요인과 진로 결정 간의 상관관계

구분	애정	무관심	거부	성취지향	희생	가정요인	진로결정 유형
애정	1						
무관심	-.534**	1					
거부	-.553**	.693**	1				
성취지향	.473**	-.261**	-.231**	1			
희생	.723**	-.343**	-.322**	.452**	1		
가정요인	.879**	-.737**	-.725**	.652**	.769**	1	
진로결정유형	-.023	.026	.046	.049	.110	.020	1

\*\*\* $p<.001$ , \*\* $p<.01$

<표 4-16> 가정 요인과 진로 결정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가정 요인과 진로 결정과는  $p>.05$ 로 나타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학교 요인과 진로 결정 간의 상관관계

	학교만족	학업문제	친구문제	교사와 갈등	가정문제	학업중단 의도	학교요인	진로결정 유형
학교만족	1							
학업문제	-.384**	1						
친구문제	-.333**	.718**	1					
교사와 갈등	-.361**	.625**	.810**	1				
가정문제	-.285**	.657**	.852**	.863**	1			
학업중단의도	-.475**	.688**	.699**	.707**	.681**	1		
학교요인	-.229**	.816**	.909**	.882**	.909**	.823**	1	
진로결정유형	.128*	-.073	.003	-.012	-.008	.067	.026	1

\*\*\* $p<.001$ , \*\* $p<.01$ , \* $p<.05$

<표 4-17> 학교 요인과 진로 결정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 요인 중 학교 만족과 진로 결정과는  $r=.128(p<.05)$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요인 중 학교 만족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학교 요인 중 학업 문제, 친구 문제, 교사와 갈등, 가정 문제, 학업 중단 의도와 진로 결정과는  $p>.05$ 로 나타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사회적 요인과 진로 결정 간의 상관관계

구 분	취업결정 자기효능감	부모님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차별의 인식	미래 불확실성	사회적 요인	진로결정 유형
취업결정 자기효능감	1						
부모님의 반대	.146*	1					
경제적 어려움	.288**	.522**	1				
차별의 인식	.339**	.413**	.508**	1			
미래 불확실성	.381**	.431**	.566**	.688**	1		
사회적 요인	.539**	.643**	.786**	.846**	.850**	1	
진로결정 유형	-.134*	.049	-.087	-.036	-.084	-.079	1

\*\*\* $p<.001$ , \*\* $p<.01$ , \* $p<.05$

<표 4-18> 사회적 요인과 진로 결정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적 요인 중 취업결정 자기 효능감과 진로 결정과는  $r=-.134(p<.05)$ 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 중 취업 결정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결정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요인 중 부모님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차별의 인식, 미래 불 확실성과 진로 결정과는  $p>.05$ 로 나타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 4 절 가설의 검증

### 1.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결정에 미치는 영향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든 분석은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Hosmer와 Lemeshow 검정에서 유의수준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두 적합한 모형에서 결과를 도출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진학 결정 여부는 ‘취업’, ‘진학’의 이분형 척도로 설정되었다. 가설검정은 먼저 개인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 사회적 요인을 요인별로 분리하여 투입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가. 개인 요인이 진로결정(여부)에 미치는 영향

개인 요인인 적성의 인지, 자아 효능감,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 진로결정 효능감,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4-19>와 같다.

<표 4-19> 개인요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종속	독립	B	S.E.	Wald	유의 확률	OR
진로 결정	적성의 인지	.326	.214	2.321	.128	1.386
	자아효능감	-.314	.215	2.124	.145	.731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469	.225	4.335	.037*	1.598
	자기조절 효능감	-.161	.279	.333	.564	.851
	진로결정 효능감	.007	.195	.001	.970	1.007
	어려움극복 효능감	-.028	.257	.012	.913	.972

\*\*\*p<.001, \*\*p<.01, \*p<.05

Hosmer와 Lemeshow 검정(모형적합도):  $\chi^2=6.954(p=.542)$

(유의수준 .05이상으로 나타나 추정된 로지스틱 모형이 적합하므로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

<표 4-19> 개인요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Hosmer와 Lemeshow  $\chi^2=6.954(p=.542)$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자기조절 학습효능감(OR=1.598,  $p<.05$ )는 진로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조절 학습효능감은 한 단계 증가하면, 대학 진로 결정은 1.598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개인 요인 중 적성의 인지, 자아 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 진로결정 효능감, 어려움 극복 효능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가정 요인이 진로결정(여부)에 미치는 영향

가정 요인인 애정, 무관심, 거부, 성취지향, 희생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4-20>과 같다.

<표 4-20> 가정요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종속	독립	B	S.E.	Wald	유의확률	OR
진로 결정	애정	-.625	.291	4.594	.032*	.535
	무관심	-.028	.258	.011	.915	.973
	거부	.072	.275	.069	.792	1.075
	성취지향	.117	.193	.368	.544	1.124
	희생	.720	.252	8.176	.004**	2.055

\*\*\* $p<.001$ , \*\* $p<.01$ , \* $p<.05$

Hosmer와 Lemeshow 검정(모형적합도):  $\chi^2=4.806(p=.778)$

(유의수준 .05이상으로 나타나 추정된 로지스틱 모형이 적합하므로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

<표 4-20> 가정요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Hosmer와 Lemeshow  $\chi^2=4.806$ ,  $p=.778$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애정(OR=.535,  $p<.05$ )과 희생(OR=2.055,  $p<.01$ )이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요인 중 애정이 한 단계 증가하면 대학 진로결정은 0.535배로 증가(1-0.535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가정요인 중 희생이 한 단계 증가하면, 대학 진로결정은 2.055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 다. 학교 요인이 진로결정(여부)에 미치는 영향

학교 요인인 학교 만족, 학업 문제, 친구 문제, 교사와 갈등, 가정 문제, 학업 중단의도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4-21>과 같다.

<표 4-21> 학교요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종속	독립	B	S.E.	Wald	유의확률	OR
진로 결정	학교만족	.567	.197	8.275	.004**	1.763
	학업문제	-.544	.233	5.459	.019	.581
	친구문제	.266	.339	.616	.433	1.305
	교사와갈등	-.201	.353	.324	.569	.818
	가정문제	-.193	.386	.248	.618	.825
	학업중단의도	.782	.238	10.789	.001**	2.186

\*\*\* $p<.001$ , \*\* $p<.01$

Hosmer와 Lemeshow 검정(모형적합도):  $\chi^2=5.907(p=.658)$

(유의수준 .05이상으로 나타나 추정된 로지스틱 모형이 적합하므로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

<표 4-21> 학교요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Hosmer와 Lemeshow  $\chi^2=5.907$ ,  $p=.658$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학교만족(OR=1.763,  $p<.01$ )와 학업문제(OR=.581,  $p<.05$ ), 학업중단의도(OR=2.186,  $p<.001$ )가 진로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요인 중 학업 문제가 한 단계 증가하면 대학 진로 결정은 0.581배로 증가(1-0581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고, 학교요인 중 학교 만족이 한 단계 증가하면, 대학 진로 결정은 1.76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고, 학업 중단 의도가 한 단계 증가하면, 대학 진로결정은 2.18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라. 사회적 요인이 진로결정(여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요인인 취업 결정자기 효능감, 부모님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차별의 인식, 미래 불확실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4-22>와 같다.

<표 4-22> 사회적 요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종속	독립	B	S.E.	Wald	유의확률	OR
진로결정	취업결정 자기 효능감	-.266	.152	3.055	.081	.767
	부모님의반대	.322	.172	3.519	.061	1.380
	경제적어려움	-.309	.217	2.040	.153	.734



	차별의인식	.122	.184	.438	.508	1.130
	미래불확실성	-.167	.195	.728	.394	.847

\*\*\*p<.001, \*\*p<.01, \*p<.05

Hosmer와 Lemeshow 검정(모형적합도):  $\chi^2=10.147(p=.255)$

(유의수준 .05이상으로 나타나 추정된 로지스틱 모형이 적합하므로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

<표 4-22> 사회적요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Hosmer와 Lemeshow  $\chi^2=10.147$ ,  $p=.255$ ). 사회적 요인 중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p>.05$ 로 나타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 5 장 결 론

### 제 1 절 분석결과에의 논의

본 연구는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특성화고 학생의 개인요인과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적 요인의 하위 요인들이 대학 진학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각각의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채택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가설검증 결과

첫째, 특성화고 학생의 개인요인이 대학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하위 요인 중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OR=1.598, p<.05$ )이 진로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 학습효능감이 한 단계 증가하면, 대학 진로 결정은 1.598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진학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성화고 학생의 가정요인이 대학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하위 요인 중 애정( $OR=.535, p<.05$ )과 희생( $OR=2.055, p<.01$ )이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요인 중 애정이 한 단계 증가하면 대학 진로결정은 0.535배로 증가(1-0.535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고, 가정요인 중 희생이 한 단계 증가하면, 대학 진로결정은 2.055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진학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특성화고 학생의 학교요인이 대학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하위 요인 중 학교만족( $OR=1.763, p<.01$ ), 학업문제( $OR=.581, p<.05$ ), 학업중단의도( $OR=2.186, p<.001$ )가 진로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교요인 중 학업 문제가 한 단계 증가하면 대학 진로 결정은 0.581배로 증가(1-0.581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고, 학교요인 중 학교만족이 한 단계 증가하면, 대학 진로 결정은 1.76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또한 학업 중단 의도가 한 단계 증가하면, 대학 진로결정은 2.18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원 중단의도 요인이 대학 진학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특성화고 학생의 사회적요인이 대학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하위변인인 취업결정 자기효능감, 부모님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차별의 인식, 미래 불확실성 모두가 대학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p>.05$ 로 나타나 대학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 2. 연구의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는 데 있다.

첫째, 개인요인(자기효능감)이 대학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하위 변인인 자기 조절학습 효능감(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 결정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는 자기효능감이 한국청소년의 삶의 질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이며(박영신, 김의철, 2008),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문제해결력, 성취도와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임미향, 박영신, 2007), ‘자기조절’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한미순, 2022).

둘째, 가정요인(부모의 양육태도)이 대학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하위 변인인 애정과 희생이 진로결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요인 중 애정이 한 단계 증가하면 대학 진로결정은 0.535배로 증가(1-0.535 감소)하는 것

으로 평가 되었고, 희생이 한 단계 증가하면, 대학 진로결정은 2.055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진학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는 서양의 부모-자녀관계와 달리 매우 고유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한국의 토착적 심리를 바탕에 두어야 한다(박영신, 김의철, 2003)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애정 및 무관심의 양육태도는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많은 영향력을 보였다(한미순, 2022).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 결정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셋째, 학교요인이 대학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하위 요인 중 학교만족, 학업문제, 학업중단의도가 진로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요인 중 학업 문제가 한 단계 증가하면 대학 진로 결정은 0.581배로 증가(1-0.581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고, 학교요인 중 학교만족이 한 단계 증가하면, 대학 진로 결정은 1.76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또한 학업 중단 의도가 한 단계 증가하면, 대학 진로결정은 2.18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의도 요인이 대학 진학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학교만족 요인은 신희경 외(2005), 임나영, 이창훈(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했으며, 학업 문제는 특성화고 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일반계고, 특목고) 학생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이영남, 2019).

넷째, 사회적요인(취업장벽)이 대학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하위변인인 취업결정 자기효능감, 부모님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차별의 인식, 미래 불확실성 모두가 대학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인 것을 알 수 있다(안은희, 2015). 또한 지이레(2010)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요인으로 진로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좀 더 확장해서 다양한 변인과의 상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이라는 넓은 범주에서 벗어나 좀 더 세분화하여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고찰해 보았다는데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앞서 연구의 논의에서 서술 하였듯이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개인요인과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 개인요인과 가정요인, 학교요인은 대학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결과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의 개인요인(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이 대학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은 스스로 설정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지, 정서, 행동 등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다. 대학진학을 결정한 특성화고 학생의 진학 상담 및 교육적 제도 등의 뒷받침을 통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성화고의 교과 편제 및 입시체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특성화고 학생의 가정요인(부모의 양육태도)에서는 애정과 희생이 대학 진학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부모의 희생이 대학진학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모의 희생을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특성화고 학생의 학교요인이 대학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만족과 학업문제, 학업중단의도가 진로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요인 중 학업 문제는 대학진학 결정에 부적 상관을 보여 감소하였으며, 학교만족과 학업중단 의도는 대학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과 진로교육, 선생님과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를 통한 학교만족이 높을수록 대학진학 결정이 높았으며, 학교 성적과 교과수업의 고충에 따른 학업문제가 대학진학 결정을 감소하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 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와 진로상담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넷째, 특성화고 학생의 사회적 요인(취업장벽)이 대학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하위변인인 취업결정 자기효능감, 부모님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차별의 인식, 미래 불확실성 모두가 대학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기간 지속된 국·내외의 경기침체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출현으로 인해 청년 실업과 취업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특성화고의 목적이 단순히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만이 아닌 대학 진학을 위한 양성기관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대학진학 결정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변인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진학 결정에 따른 구체적 교육정책과 지원 사항을 파악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진로교육과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마련하는데 있다. 또한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진학 지도와 특성화고의 교육 과정 개선 방향에 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제 3 절 향후 연구 방향 및 제언

본 연구는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남학생만으로 구성된 공업계 단성 특성화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자료 수집에 있어 연구의 대상과 범위가 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표본도 289명에 불과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 범위를 특정지역으로 한정시키기 보다는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공업계 특성화고 뿐만 아닌 다양한 특성화고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지가 선행 연구에서 수정 보완한 질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측정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게 축소되거나 과장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를 통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요인과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적 요인에 관해 검증했는데, 개인요인에서는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학습 효능감만이 대학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요인의 하위요인에서는 가정의 애정요인과 희생요인이 대학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요인에서는 학교만족, 학업문제, 학업중단의도가 대학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요인의 하위 요인인 취업결정 자기효능감, 부모님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차별의 인식, 미래 불확실성 모든 요인이 대학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되었던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진학 결정 변인에 관한 보다 정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요인과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적 요인과 종속변수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는데 더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각 측정 변수들의 연관성과 매개효과에 관한 추후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생이 2년제, 4년제와 같은 대학 유형에 따른 진학률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타 고등학교 유형과 특성화고의 대학 진학 촉진 비중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을 통한 후속 연구를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진도 및 향후 특성화고등학교의 방향성 및 교과편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고영란 (2015).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 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 태도성숙도 및 진로교육만족도의 조절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의근 (2017). 상업정보계열 특성화고 남녀학생의 진로결정요인 분석: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200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부고시.
- 교육부 (2021a). 2021년 OECD 교육지표,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2021b). 2021년 간추린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2021c). 2021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 교육부 (2022a). 20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2022b). 진로교육현황조사: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고등학교 유형별 비교), 통계청.
- 교육부 (2022c). ‘2022 개정 교육과정’총론 주요사항 발표.
- 교육부 (2023). 포털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go.kr).
- 권미숙 (2022). 특성화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식, 이현철 (2007). 진로결정 수준 변화의 영향요인, 중등교육연구, 55(3), 143-164.
- 김나라 (2008). 특성화 고등학교생의 진로개발 실태 분석: 일반계 고교생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남희, 변숙영, 최동선 (2021).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사들의 원격수업 경험과 의



- 미 탐색, 직업교육연구, 40(1), 2-12
- 김소예 (200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선택 만족 및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규 (2006).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발달모형-보호요인의 부가, 매개, 조절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신애, 이해은 (2015). 취업 장벽의 국내 연구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97-97.
- 김아영 (2022). 미용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취업 진학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안국, 신동준 (2010). 전문계고 졸업 여성청년의 노동시장과 학업선택요인, 제5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07, 130-137.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재홍 (2004). 제주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실태 분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란 (2006).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대학진학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은 (2008).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심리적 변인간의 인과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김홍기 (2016). 특성화고 학생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인천 지역 특성화고 학생 경험에 대한 탐색적 사례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홍기, 김지훈, 김양현 (2017). 왜 특성화고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가?: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 수정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 18(2), 35-69.
- 노혜정 (2003).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학결정, 진학준비행동 유형에 따른 불안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맹희주 (2014).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업가치관과 진로성숙도 비교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18(3), 579-599.
- 문승태, 김희수 (2009). 농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불안, 심리적 안녕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연구*, 41(1), 67-85.
- 박봉남 (2012). 특성화 고등학교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연구*, 10(1), 139-165.
- 박영신, 김의철 (2006). 청소년기 신뢰의식의 형성과 집단별 차이 비교: 인간 관계 신뢰에서의 토착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3), 85-127.
- 박영신, 김의철 (2008). 한국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교육심리연구*, 22(4), 801-836.
- 박영신, 안자영, 남인순, 유효숙, 이영남, 차연실 (2018). 중년 성인 원가족의 부모 자녀관계가 자기효능감, 자녀양육과 노부모부양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2), 153-192.
- 박완성, 김미숙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수도권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2(4), 85-108.
- 송하림 (2016).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진학 결정요인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상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희경, 김우영 (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 동기에 관한 연

- 구: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직업능력개발연구, 8(2), 47-83.
- 신희경, 김우영, 이지연 (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동기에 관한 연구: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307-336.
- 안귀덕, 황정규, 김의철, 박영신 (1997). 한국청소년 문화: 심리-사회적 영향요인,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 안은희 (2016).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각한 취업장벽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희진 (2022).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장벽 군집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차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석영. (2012).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요인 분석: 서울지역 진로결정 집단별 비교. 직업교육연구, 31(3), 135-151.
- 오성철 (1989). 고등학생의 포부수준 결정모형 탐색,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헌석, 배진현, 이상은, 장현진 (2010).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 비교 연구, 직업교육연구, 29(2), 245-265.
- 유정미, 황재원, 박지아 (2009).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진로지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2(3), 71-96.
- 윤광현 (2012).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장벽 인식이 취업미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영란 (2009).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15권 1호, 91-106.
- 윤창호 (2005). 직업훈련자가 지각하는 취업장벽요인에 대한 반응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섭 (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진로지도 활성화 방안 연구: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제 (2010).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남 (2019). 고등학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민, 남정권, 조형정, 이수영 (2011).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팀 기반 학습방법이 학습자의 과제수행, 학습활동, 동기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0(2), 51-71.
- 이재철 (2015). 일반계 여고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사회적지지 및 진학결정 수준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혁, 박재우 (2019). 청소년의 부모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의 발달궤적: 자기효능감의 중단적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12), 95-121.
- 이종범, 정철영 (2004). 중학생의 가족관련변인과 진로포부 및 진로의식간의 관계 분석, 제1회 한국교육고영패널학술대회 자료집, 785-795.
- 이주희, 문은미 (2011). 부모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가 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2), 211-226.
- 이준호, 정태열 (2013). 특성화고 조경과 학생들의 기능인력 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1(2), 38-46.
- 이지혜, 정철영 (2010). 특성화 고등학생의 취업장벽과 관련 변수,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1), 25-47.
- 이혜영 (2012). 학생의 학교 부적응 진단과 대책(I),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임나영, 이창훈 (2015).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진로결정상태 유형 분석,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0권 1호, 40-63.
- 임미향, 박영신 (2007).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초,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연세대학교.
- 장하연, 이영민 (2022). Elastic Net을 활용한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 관련 변인 탐색, 직업교육연구, 41(4), 45-66.

- 정소영 (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분석,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채기 (1991).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 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동헌, 김혜원, 박삼철 (2012). 입학사정관전형 준비 여부에 따른 고등학생의 진로 자아인식과 진로성숙도 및 진로진학결정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31(4), 1-23.
- 조아미 (2007). 청소년의 직업결정유형과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 시설환경, 5(1), 11-20.
- 주홍석, 정철영 (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스트레스 및 문제해결력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3), 73-97.
- 지이레 (201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결정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창균 (2009).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선택, 한국교육고용패널 2차 학술대회 발표 논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5-74.
- 최동선 (2009). 전문계 고교생의 대학진학 계획-1차년도와 4차년도의 비교, 한국교육고용패널 4차 학술대회 발표 논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5-104.
- 최수정 (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몰입과 가족결정에 관한 구조 방정식 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정, 이항심, 정혜윤, 김은덕, 유성경 (2007). 학업우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진로지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0(3), 135-158.
- 한미순 (202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인식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학위논문.
- 허다경 (2017).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년 별 진로결정 변화에 대한 탐색적

- 조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표, 정진철 (2016).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진학결정수준과 준비행동에 따른 진로결정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직업교육학회 35(5), 1-30.
- 황여정 (2007). 일반계 고등학행의 진로결정 및 진로정보인지수준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7(1), 131-158.

## 2. 국외문헌

Bandura, 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self-regul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248-287.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House, J.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ss: Addison-Wesley.

Rohner, R. P. (1984).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CT: University of Connecticut Press.

## 설문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모두 통계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분석결과는 반드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연구결과는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 결정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니 솔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상황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 해주시면 됩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4.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 교육전공 석사과정 배세인

I. 다음은 학생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해주세요.

1. 귀하의 학과는 무엇입니까?

- ① 공간디자인    ② 스마트전기    ③ 스마트기계    ④ 스포츠과학

2. 귀하는 몇 학년입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II. 다음은 여러분의 진로 결정과 관련된 개인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 해당하는 문항에 √ 표 해 주세요. 정답이 없으므로,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자신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정해진 시간 내에 과제를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공부에 잘 열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주위에서 유혹이 있어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스스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따분하거나 화가 났을 때, 잘 자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 적극적으로 재도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른 흥미 있는 일들이 있어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친구들이 유혹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매우 심한 좌절을 잘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공부계획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갑자기 화가 날 때 자신의 성질을 잘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미래의 진로에 대해 두려움 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곤란에 부딪쳐도 기가 꺾이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부모님은 평소에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각각 해당하는 문항에 √ 표 해주세요. 정답이 없으므로,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 대해 관심이 없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나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공부에 대해 자주 물어 보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곤란도 감수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잘한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격려해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무관심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나를 짐스러워 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9	학교성적에 대한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위해 참으셨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와 관련된 일을 잊을 때가 자주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은 나를 싫어 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14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라도 나를 위해 사셨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에게 부드럽게 대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17	부모님의 일에 바빠서 나와 제대로 말할 틈도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18	부모님은 차라리 내가 없기를 바라셨다.	①	②	③	④	⑤
19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신다.	①	②	③	④	⑤
20	부모님의 인생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 노력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를 즐겁게 해 주려고 애쓰셨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모른 척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23	부모님은 나를 수치스러워 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24	장래성 있는 직업을 갖게 되길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25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여러분의 진로 결정과 관련된 학교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 해당하는 문항에 √ 표 해 주세요. 정답이 없으므로,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학교생활 전반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의 진로교육이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과의 대화가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친구와의 대화가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성적이 나빠서 학교생활이 고통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6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서 학교 가는 것이 고통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선생님이 나를 무시하니 학교 가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 사이가 나빠서 학교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	①	②	③	④	⑤

	다.					
9	학교에 가기 싫다.	①	②	③	④	⑤
10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 수업시간이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11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워서 학교생활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2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학교생활에 의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3	집안문제 때문에 학교에 와서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5	공부에 흥미가 없어 수업시간이 지루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고민을 의논할 친구가 없으니 학교에서 외톨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선생님이 나를 함부로 대해서 기분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18	부모님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0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좌절된다.	①	②	③	④	⑤
21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없으니 학교생활이 재미없다.	①	②	③	④	⑤
22	선생님이 꾸중을 많이 하니 학교생활이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23	부모님 잔소리 때문에 학교 와서도 기분이 안 좋다.	①	②	③	④	⑤
24	학교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진로 결정의 사회적 요인으로 취업과 관련해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느끼는 것도 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도 있습니다. 각 문항을 읽어보시고 현재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 정도 혹은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의 정도에 해당하는 곳에 √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않다	그 렇지않다	보 통이다	그 렇다	매 우그 렇다
1	나는 직장 생활에 필요한 자격증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취업을 하기에는 나의 학력이 높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만큼 성적이 우수하지는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일을 반대한다면 그 일을 나의 직업으로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이나 집안 식구들의 기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가족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빨리 돈을 벌어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앞으로 취업을 선택할 때,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제일 우선시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앞으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가정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면, 직장에서 대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면 특성화 졸업자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월급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면, 특성화 졸업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을 때 대졸자들에 비해 학력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면 특성화 졸업자이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한정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원하는 취업분야는 취업전망이 밝지 않아 불안	①	②	③	④	⑤

	하다.					
18	나는 미래에 사회적 지위가 낮을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미래에 월급이 적을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0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 모든 설문을 마쳤습니다.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